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정희진

- A - allosexual(유성애자) / A - asexual(무성애자) /
- H - heterosexual(이성애자) / L - lesbian(레즈비언) /
- G - gay(게이) / B - bisexual(양성애자) /
- Z - zoophilia(동물성애자) / O - objectophilia(사물성애자) /
- P - pansexual(범성애자) / P - pedophilia(소아성애자) /
- P - polyamory(폴리아모리) / T - transgender(트랜스젠더) /
- I - intersex(인터섹스) / Q - questioning(모색 중인 사람) /
- G - gray sexuality(흔들리는 이들, 중간 지대라는 의미는 아님)

사람들은, 인간은 남녀 중 하나로만 태어나고 (남성 중심의) 이성애가 “자연의 순리”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실제 인간의 몸과 성 정체성, 성적 실천(practice)은 매우 다양하다. 위에 적은 항목 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애 외 다른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젠더 이분법을 교란, 해체하며 기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계(예를 들면, 젠더에 의한 섹슈얼리티 억압)를 재정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

- 근대적 인권 개념, 보편성(uni/versal)의 폭력
- 보편성을 보완하는 다양성(poly/versal)의 탈정치성
- 횡단의 정치는 차이를 상기시키는 교차성, 차이를 포용하면서 함께 행동

유/무성애를 기준으로 하면, 무성애자와 유성애자가 있을 ‘뿐이다’. 유성애자는 다시 대상이 누구인지, 이성, 동성, 사물인지 동물인지에 따라 나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면, 사물성애(object sexuality)는 움직이지 않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둔 성애이다. 범성애자는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이 성애의 대상이다. 물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소아성애자(pedophilia) 정체성을 ‘타고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커뮤니티 등의 활동은 하되, 실제 실천은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노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한다.

정체성과 일상의 실천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이나 아동과의 관계는 합의가 어려우므로 무성애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한편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는 인간의 몸의 성별, 즉 생물학적 의미의 섹스인 ‘male’, ‘female’로 구분된다는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다양하고 유동적인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은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이성애를 상대화하고 이성애의 문제들(성폭력, 성 상품화, 가부장적 성적 규범)을 문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섹슈얼리티 개념의 가장 문제적이고 좁은 개념은 남녀 간 성교(intercourse)이다. 이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인식할 때 변화도 가능하다.

정희진

월간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전 이화여대 초빙교수.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부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 (전 5권),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페미니즘의 도전』, 『아주 친밀한 폭력-가정폭력과 여성인권』, 『혼자서 본 영화』, 『정희진처럼 읽기』, 『낮선 시선』 등을 썼으며,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의 편저자다.

몸은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중립적인 몸은 없다. 모든 몸은 사회와 문화가 체현된(embodied) 몸(social body/mindful body)이다. 모든 사회에 남녀 구분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가치는 각각 다르고, 남녀 구분의 기준도 다르다.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분단화, 양단화, 양극화된 ‘드라마틱한’ 사회다. 남녀 이분법에다 획일적인 문화까지 겹쳐 조금이라도 다르면 곧바로 문화적 차별이 따른다. 구성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별 구분 외에도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 소비문화, 의류 유행 등 모든 면에서 ‘대세’라는 이름의 일방 문화는 의외의 소수자를 낳는다.

누가 여성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해부학?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일시적 구호이다. 생물학‘적’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조차 과학적이지 않다. 양성이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생물학을 혼동한다. 실제로 이 둘은 정반대이다. 생물학은 환경과 문화와 생명체의 상호 작용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본질을 캐는 학문이 아니다. 아니, 생물학뿐이 아니다. 본질을 추구한다면 이미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다.

모든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날 뿐인데,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인간을 ‘남녀’로 구별한다. 이는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어야 차별의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흔히 말하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차이를 원래 있는 것처럼 본질화, 고정화하는 사고방식이다.

무엇이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이다. 여성도 남성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표시되는 것뿐이다. 성별은 없다. 억압받는, 그리고 억압하는 성별이 있을 뿐이다. 여성은 실체도, 실재도 아닌 지배 규범(‘성 역할 사회화’)의 산물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한 여성만 여성으로 간주된다. 나이, 인종, 계급, 외모, 직업 등에 따라 여성의 개념은 유동적이다.

세상에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커플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무성애자(asexual)도 있고, 기계, 동물, 자연, 우주 등 모든 사물에 성애를 갖는 범성애자(pansexual)도 있다. 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으며, 본인의 실체와 인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성애는 치밀하게 강제된 제도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동성애자의 비율도 달라진다. 동성애자가 많이 모여 살고 관련 커뮤니티가 발달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동성애자 인구가 많다.

인간의 성적 행위와 이와 관련한 일상에서 사회 규범과 실천의 차이는 (의외로) 매우 크다. 타인의 행동과 자기 행동의 인식도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섹슈얼리티는 젠더, 연령, 장애, 인종, 계급 등의 사회적 모순에 따라 시민권(membership)의 경계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첨예한 정치학이다. 정상적인 성, 아름다운 사랑은 ‘젊은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녀’의 관계에 국한된다. 이를테면 노인, 죄수, 노숙자의 사랑은 ‘독립 영화’의 주제가 된다. 주파일(zoophile, 동물성애자)은 이러한 정상성을 둘러싼 연속선상의 극단에서 자신의 사랑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대 이후 ‘성 역할 공장(factory)’이라고 불렸던 서구 중산층 이성애자 핵가족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남성 생계 부양자’와 ‘여성 가사 노동자’라는 일부일처제 모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과 성적 규범의 근간을 이룬다. 동시에 자본주의 등장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이 가능해지자 레즈비언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레즈비언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젠더와 계급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긴 역사를 가진 제도다. 주파일의 가시화와 확산도 사회 제도에 달려 있다. 이성애자도 주파일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에로틱의 의미는 계속 재정의되어야 한다. 사랑이나 성애의 상대가 누구든 간에 동등함과 관계성, 인격적 관계가 에로틱한 것이며 이러한 상태(사랑)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파일은 인간의 사랑 행위 중 일부일 뿐, ‘동물과 섹스하는 사람’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섹스가 아니라 동물의 삶을 성의 측면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레즈비언이 되기로 ‘선택’한 여성들, 아니, 모든 인간들처럼 주파일을 선택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선택한다는 것은 성적 지향에 머무는 일이 아니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다.

이성애자와 주파일 중 누가 더 성과 사회에 고민이 많겠는가. 그런 면에서 주필리아는 여성 노동의 성애화,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만연한 젠더 폭력, 구조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새로운 목소리이다.

일시
2024년 6월 3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